

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.

제11회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



Global Inspiration
세계속의 경기도

2014. 11. 05.
경기도농업기술원

병해충 종합관리 요령

◆ 시설재배지 환경관리

-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보온 및 환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작물생육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

◆ 채소류 응애, 진딧물, 총채벌레, 흰가루병, 역병

- 오이 등 채소류에 응애, 진딧물과 흰가루병, 역병 등이 발생하는 포장에서는 발생초기부터 1주일 간격으로 2~3회 방제하되 가급적 성분이 다른 농약을 선택하여 정밀방제

월간 기상전망(11.3~11.30)

(수원기상대)

맑은날이 많겠으며, 일시적으로 기온변화가 클때가 있겠음

- 1주(11. 3~11. 9) :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많겠음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,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
- 2주(11.10~11.16) :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때가 많겠음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.
- 3주(11.17~11.23) :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음. 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하겠으며,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.
- 4주(11.24~11.30) :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받겠으며,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비가 올때가 있겠음.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,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음.

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오이, 토마토, 딸기, 상추 등 시설재배 작물을 중심으로 11월중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하니 재배관리 및 적기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 정보는 인터넷 <http://www.nongup.gyeonggi.kr>로 보실 수 있습니다 -

의문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(031-229-5863)이나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전화해주세요

1. 과채류 응애, 진딧물, 총채벌레, 아메리카잎굴파리, 온실(담배)가루이

① 오이, 토마토, 등 과채류는 물론 장미, 국화 등 화훼류에서도 응애와 진딧물, 온실가루이, 담배가루이, 아메리카잎굴파리, 총채벌레가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시설하우스에서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

② 대부분의 시설하우스 내에서는 알, 약충, 성충 등이 동시에 발생하여 방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가급적 발생초기부터 주기적으로 2~3회 연속 방제하되 약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크므로 성분이 다른 농약으로 바뀌가며 방제

- 응애 : 살비왕, 밀베노크, 지존, 산마루 등

- 아메리카잎굴파리 : 에이팜, 명타자, 아리엑셀트 등

- 진딧물, 총채벌레, 온실(담배)가루이 : 델리게이트

보스팬텀-세티스, 금관총, 빅카드, 부메랑·올가미·심포니, 천하무적, 오신, 코사인·코니도, 맹타, 대포, 당찬, 팬텀 등



담배가루이



꽃노랑총채벌레

2. 토마토황화잎말림병

① 토마토황화 잎말림병은 담배가루이가 전염시키는 바이러스 병이며, 평택 등 일부 시설하우스에서 발생

② 병을 전염시키는 담배가루이의 세대 기간이 짧아 연간 발생회수가 많으므로 방충망을 이용하여 시설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, 육묘시 철저한 관리로 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며, 발생초기 천적이나 적용약제로 방제



토마토황화잎말림병

2. 엽채류 담배거세미나방, 파밤나방 등 나방류

- ㉠ 담배거세미나방 등이 연속 재배하는 시설재배지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부 포장에서 피해를 주고 있음
- ㉠ 담배거세미나방 등 저항성이 큰 나방류 애벌레는 3령 이상 크게 자라면 방제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잎 뒷면, 배추 등의 속잎까지 자세히 살펴보아 애벌레 발생초기에 적용농약으로 방제



담배거세미나방

- 젠타리살충탄, 솔빛채, 애니충, 세베로, 후려니, 로드, 토박이, 팔콘, 라이몬, 스투어드골드, 프레오 등

※ 수확기를 앞둔 농산물에 농약살포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고농도 살포, 밀폐관리 등을 할 경우에는 잔류기준 이상 초과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미생물농약이나 친환경제제 등으로 바꿔가며 방제

3. 과채류 노균병, 흰가루병, 잎곰팡이병, 잿빛곰팡이병, 역병

- ㉠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시설하우스의 밀폐관리 등으로 습도가 높아져 노균병, 잎곰팡이병과 역병 등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건조할 경우 흰가루병 피해가 우려됨
- ㉠ 따라서 물을 준 후에는 환기 등으로 습도를 알맞게 관리하고 잎 뒷면까지 자세히 살펴보아 발생초기에 적용농약으로 정밀하게 방제하되 농약성분이 다른 농약으로 바꿔가며 방제



오이 노균병

- 노균병, 역병 : 커튼, 이코션, 명작, 경탄, 골기퍼, 쿠파.코사이드, 오차드, 델란케이, 커지엠, 타노스, 미리카트 등
- 흰가루병, 잎곰팡이병, 잿빛곰팡이병 : 적토마, 에스원, 더마니, 트리후민, 사파이어 등

천적이용 해충 방제요령

천적이용 원칙

- 작물과 천적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시설내 환기, 점적관수 시설 등을 설치하여 온도와 습도 등을 관리
- 끈끈이트랩과 루페(돋보기) 등을 이용하여 해충의 정밀예찰 후 발생초기 투입
 - ※ 정밀예찰이 어려울 경우에는 작물정식 직후부터 천적투입
 - ※ 작물에 피해가 나타날 정도일 경우에는 천적투입 지양(방제 어려움)
- 농약과 살충효과가 있는 친환경자재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천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



<온실가루이 확인 후 천적투입>



<진딧물이 진디벌 번데기로 변함>

천적방사 후 관리요령

- 천적투입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방제효과 여부 파악
 - ※ 포식성 천적은 1주일, 기생성 천적은 2주일 정도 소요
- 기생벌 방사 직후 분무형태의 물주기 지양(습도가 높으면 정착을 못함)
- 농약, 친환경제제 사용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천적에 영향이 적은 것을 선택